



정읍시 시기동 지사협, 추석 명절 상차림비용 지원

정읍시 시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560만원을 활용해 저소득 가정 80세대에 7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로 명절 차례상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이웃 간의 정을 느끼며 따뜻한 추석 명절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련했다.

시기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변의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전달돼 행복한 시기동이 되도록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박병래 부안군의회, 추석 맞이 부안상설시장 방문

부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안상설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장보기에는 박병래 의장과 함께 이강세 부의장, 김형태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과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박병래 의장은 상설시장에서 지역 상인들과 직접 대면하며 추석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하였다. 이번 장보기는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안 상설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날 함께한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차 길터주기, 생활안전 수칙에 관한 캠페인을 펼쳐 그 중요성을 알리고 상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병래 의장은 "오늘 지역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며, "이번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과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지역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새마을부녀회, 밀반찬 나눔 행사

남원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윤영옥)가 지난 10일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에서 사랑의 밀반찬 나눔 행사를 펼쳐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밀반찬으로 열무김치, 배, 장조림, 무생채, 감자반을 정성껏 만들어 흠뻑아르신과 다문화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소외된 이웃 700여가구에 밀반찬을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 어르신은 "남원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꾸준히 챙겨주시니 항상 고맙다"고 전했으며, 윤영옥 남원시 새마을부녀회장은 "두손 가득 마음 담은 밀반찬을 통해 따뜻한 온기도 함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지역회, 신풍동 독거노인에 400만원·물품기부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김제지역 대표 봉사단체인 지역회(회장 한동업)가 지난 10일 김제 신풍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가정 5세대를 방문해 세대당 80만원의 현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회'는 지난 1994년 창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독거노인가정 돌봄 및 자매결연을 맺은 가정에 대해 후원물품, 현금지원 등과 함께 수시로 방문, 건강체크 및 말벗지원, 집수리 등 정서적, 경제적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 지역사회내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한동업 회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고독 등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해외대학과 연구협력 강화

상반기 베트남 등 해외 연구진 대상, 감염병 전문가 과정 교육 프로그램 진행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해외의 주요 대학과의 고위험 병원체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전북대 수의대와 연합 세미나를 개최, 글로벌 보건의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 등의 연구진 대상 감염병 전문가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8월 26~29일에는 태국 나레수안대학교(Naresuan University)와 베트남 빈대학교(Vinh University)와의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일본 아부쿠치대학교도 연구원들에게 인수공 연구소 ABL-3 시설에서 Level 3급 고위험 병원체 취급 모의 실습을 통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ABL-3시설의 운영 사례와 고위험 병원체 취급 절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실제 ABL-3와 동일하게 만들어진 특수 모의 시설에서의 실습이



진행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 견학자들은 "ABL-3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연구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중훈 소장은 "다양한 국가와의 고위험 병원체 연구 교류를 기반으로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연구소와 해외 대학과의 연구 협력 프로그램은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사업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초중고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필요"… 전북학생의회 정기회 개최

전북학생의회 제2회 정기회가 11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정기회에서는 6개 안건이 다뤄졌다.

안건은 △내내 통학버스 인원 초과 탑승 제한 △미래 사회를 대비한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권 및 학생 인권 존중 토론회 실시 △종합학교에서의 학생 종교의 자유 보장 △전북학생의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 등이다.

먼저,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 맞춤형 금융경제교육을 제안했다.

또 학생생활위원회는 일반계고 진학박람회 개최해 중·고교생 상호 멘토링 활동을 통한 미래 설계 지원을, 인권위원회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호 공존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종교단체 설립 학교 재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제안했다.

특히 이 자리에 전북교육청 담당자들이 출석해 6개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학생회 오인영 부의장은 이날 3분 자유발언에서 "통학버스 인원 초과 탑승으로 등·하교시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학업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현서 의장은 "전북학생의회는 상반기 임시회와 정기회, 교육감과의 정담회, 전북학생의회·지역학생의회 의장단 연합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과 교류 활동을 해왔다"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북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정기회에서 제안한 정책이 교육공동체의 기본적 권리를 한층 더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제안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부귀면 '국수마루' 착한가게 지정

진안군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봉진·박영춘, 이하 협의체)는 지난 10일 '국수마루' 대표(정재신)에게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국수마루'는 지난 6월에 부귀면 소재지에 개업하고, 점심시간 대에 국수와 김밥을 판매하는 식당이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담백하고 맛있는 음식, 깔끔한 실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찾는 가게가 되었다.

또한 힘든 일을 하는 일꾼들은 국수 1인분 6000원의 가격으로 밥먹기의 양을 먹을 수 있으니 더욱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테이블 회전율이 빠른 국수집이지만 점심시간에는 대기줄을 선 모습도 볼 수 있다.



정 대표는 "많은 이들이 저희 식당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하여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가게를 방문한 손님 김장갑 님이 후원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군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 의원연구회인 '진안군자치법규 정비 연구회'가 지난 10일 진안군의회 1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진안군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대표 손동규 의원을 비롯해 이부라, 이미옥, 김민규, 김명갑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연구원 최민수 연구원이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올 4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으며 앞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조례 정비는 단순히 정비 과제를 발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군민을 위해 불편한 조례를 개정하고 군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진안군 조례 322건을 전면 검토한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진안군 자치법규 일반 현황 조사 및 문제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체 정비,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정비 등이 제시됐다.

연구단체 참여 의원들은 "진안군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조례 제·개정 발의 자료로 활용돼 진안군의 자치역량을 높일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교도소, 추석 명절 맞아 이웃사랑 실천

전주교도소(소장 안영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1일 장애인 복지시설인 '소화진달네집'과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을 방문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전주교도소는 '소화진달네집'과 '전주영아원'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각 교도작업 제품인 화장지와 위문금(50만원)을 전달하며 작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매년 '나눔미장학회', '사랑의 연탄나눔', 사회복지시설 위문분문 등을 실시해 이웃 사랑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안영삼 소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전주교도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추석맞이 효나눔 한마당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윤경)이 추석을 맞이해 지난 10일 지역 어르신 300명이 참석해 효나눔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민요공연, 율놀이, 식사대접 등을 통해 한가위 풍성함을 전달하는 시간이 됐고,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에서 백미, 임실우체국에서 저소득 독거어르신에게 생필품 꾸러미를 기부하여 전달했다.

임실군 여성이용소방대에서는 점심 배식 봉사활동으로 마음을 나눠 주는 등 기부와 손길이 더해졌다.

또한, 65세 이상 취약 노인에게 안부 확인, 가사 활동 지원 등이 제공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740명에게 송편과 추석 선물을 생활지원사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전달했으며, 가족의 방음이 어려운 독거어르신 59명에게는 영양 키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창남건설, 남원 향교동에 백미 10kg 20포 기부



남원시 향교동 관계자는 지난 10일, 창남건설에서 추석맞이 백미 20포를 기부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창남건설 대표(김재주)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한 백미를 준비하였다며, 맛있는 밥을 지어 드시며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권혜정 향교동장은 "혼자 지내신 어르신들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큰 선물이 되었다며, 향교동도 언제나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 어린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서, 청소년 '딤페이킹 예방' 합동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경찰서는 무주중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1일 청소년 딤페이킹 범죄예방 및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2학기를 맞아 학교를 방문하여 허위 영상물인 딤페이킹 범죄 예방과 피해 발생시 지원 방안에 대하여 홍보 활동을 펼쳤다. /무주=전문서 기자

김제 청하면, 지평선 새마루서 이장회의 개최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11일 지평선 새마루에서 9월 1차 이장회의를 열고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정 및 민정 주요 현안 사항 전달과 더불어 지역 새 명소인 '지평선 새마루' 시설 탐방을 실시했다. 지난 6월에 개관한 '지평선 새마루'는 10여년 넘게 방치되어 온 옛 동진강휴게소를 주민편의형 휴게공간과 음식점 등을 갖춘 새단장 후 문을 열었다.

박주범 이장협의회장은 "새로 단장한 지평선 새마루 일대를 직접 둘러보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음식을 먹어보니 새로운 명소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할 수 있게 이장님들이 앞장서서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Table with 4 columns: 전주지사, 중앙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인후지사, 김제지사, 진안지사, 정읍지사, 삼천지사, 순창지사, 정읍지사, 김제지사, 완주지사, 김제지사, 군산지사, 부안지사, 무주지사, 호치지사, 익산지사, 고창지사. Includes phone numbers for each office.